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5월 1주 ~ 5월 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 소비자물가, 4월 전년 대비 3.2% 상승, 예상치 소폭 상회(4.30)
 - 통계청(GUS)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 동월 대비 3.2%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약 0.2%p 상회
 - 물가 상승률은 2월 2.1% → 3월 3.0% → 4월 3.2%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며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흐름 확인
 - 다만, 폴 중앙은행은 2026년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을 약 2.3%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, 중장기적으로는 목표 범위 내 안정세 유지 예상
 - 전반적으로 최근 물가 흐름은 단기 반등 국면이나, 통화당국 전망 기준으로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됨
- 폴 실업률, 3월 3.3%로 EU 내 세 번째 최저 수준 기록(5.4)
 - EU 통계청(Eurostat)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6년 3월 실업률은 3.3%로 EU 평균(6.0%) 대비 크게 낮으며, 체코(3.1%), 몰타(3.2%)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 기록
 - 반면 핀란드(10.4%), 스페인(10.3%) 등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회원국 간 노동시장 격차가 지속되는 모습
 - 한편 폴란드 통계청(GUS) 기준 실업률은 6.1%로 집계되어, 통계 방식 차이에 따른 지표 간 괴리 존재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 중앙은행, 2026년 물가 상승률 전망 9.4%로 상향 조정(5.13)
 - 우 중앙은행(NBU)는 2026년 연말 기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7.5%에서 9.4%로 상향 조정
 - NBU는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 확대를

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

-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은 2025년 5월 16%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둔화세를 보였으나, 2026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.6% 상승하며 다시 상승 압력 확대
- NBU는 기준금리를 현재 15%로 유지하고 있으며,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관리 지속 방침임

○ 우크라이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 1.3%로 하향 조정(5.12)

- 우 중앙은행(NBU)은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8%에서 1.3%로 하향 조정, 2분기 성장률 전망도 기존 2.4%에서 1.7%로 낮춤
- 2026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.5% 감소했으며, 흑한기 전력 부족과 발전·송전 설비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
- NBU는 에너지 공급 차질, 기업 운영비 증가, 외부 지원 지연에 따른 재정지출 제약 등이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
- 특히 천연가스·에너지 장비·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수입이 확대된 반면, 수출 회복은 제한되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악화
- NBU는 2027년 성장률 전망은 2.8%로 유지했으며, 에너지 시스템 복구·투자 회복·농업 생산 증가 등을 중기 성장 요인으로 제시
-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력 인프라 피해와 전시 경제 부담으로 단기 성장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나,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복구와 투자 회복을 통한 점진적 개선 기대 지속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 제슈프에서 재건·방산 연계 URC 2026 사전회의 개최(4.27)

- 폴 제슈프에서 4.26~27일 'Road to URC - Security and Defense Dimension' 사전 콘퍼런스가 개최, 해당 회의는 6월 그단스크에서 예정된 URC 2026의 사전 준비 성격
-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계된 방위·안보 산업 협력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드론 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

- URC 2026 본회의에는 약 2,000명 이상, 40개국 이상 참여 예정이며, 각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
 - 이외에도 폴 국책개발은행(BGK),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 재건·투자 지원프로그램인 Ukraine Facility 산하에서 총 1.75억 유로 규모 보증 협약 체결할 예정임
 - 해당 협약은 EU가 대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, 우크라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 안정성 및 금융기관 참여 유인을 제고
 - 지원 대상은 에너지·교통·제조업 등 핵심 인프라 분야이며, 물류·산업·방산 연계 민군겸용(dual-use) 프로젝트까지 포괄
 - 본 협약에 기반한 총 금융 지원 여력은 약 1.95억 유로 수준으로, 대출 조건은 ▲프로젝트 당 5백만~50백만 유로 규모 ▲최대 15년 만기 ▲최대 2년 거치기간 제공
 - 민간 투자자의 최소 25% 자기자본 투입을 전제로 하며, 우대금리 및 보조금 금리도 병행 지원 예정
 - 지원 대상 기업은 폴란드 및 우크라 기업, 특수목적법인(SPV), 합작투자(JV) 등 다양한 투자 구조 포함
- 독일 기업의 폴 이전 확대 및 CPK 프로젝트 기대감 고조(4.29)
- 폴-독 상공회의소(Polish-German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)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폴란드로 이전되거나 대체 되는 사례 증가
 - 독일은 높은 에너지 비용, 숙련 인력 부족, 과도한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경쟁력 약화,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가속화
 - 폴란드는 인프라·물류·공급망·서비스의 통합적 환경을 기반으로 투자 매력도 상승, 외국인 투자자 설문에서 중동부 유럽 2위 투자처로 평가
 - 독일의 대폴란드 직접투자는 약 2,654억 즈위티 규모로 확대, 독일 기업의 약 94.5%가 폴란드 재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안정적 투자처로서 인식 강화

- 다만 세제 부담, 법·제도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,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투명성 개선 정책에 대한 투자자 체감도는 제한적
- 독일 측은 폴란드와의 산업 이동이 갈등 요인이 아닌 경제적 선택이며,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 구조라고 강조
- PKP Cargo, 한국 기업과 방산 물류용 철도차량 생산 협력 추진(4.29)
 - PKP Cargo는 한국 Shung Shin Rolling Stock Technology(SSRST)와 방산 물류 관련 철도차량 공동 투자 위한 의향서(LoI) 체결
 - 프로젝트는 중장비 군수물자 운송용 철도 화차 생산을 목표로 하며, 폴란드 국방 물류 역량 강화 및 산업 기반 확대 기대
 - 생산 거점은 Szczecin(슈체친) 내 PKP Cargo가 보유한 항만 철도 허브 인근 부지로 검토 중
 - PKP Cargo는 부지·인력 등 자산 제공, SSRST는 기술력 및 노하우 제공하는 구조의 협력 모델
 - 양사는 폴 내 특수목적법인(SPV) 설립 가능성 검토 중이며, 자금 조달은 국방·안보 펀드, 수출신용기관(ECA),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 계획
 - 현재 계약은 비구속적 MOU로 12개월간 유효, 향후 세부 투자 및 금융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예정임
 - 이번 투자는 한-폴 방산 협력 확대 및 유럽 내 군수·물류 인프라 강화 흐름과 연계된 투자로 평가됨
- 폴 PZU, 우크라 보험사 인수하며 중동부 유럽 확장 전략 추진(5.4)
 - 폴 국영 보험사 PZU가 우크라 최대 생명보험사 MetLife Ukraine 지분 100% 인수를 위한 조건부 계약 체결
 - MetLife Ukraine는 우 생명보험 시장 점유율 약 49%, 고객 약 90만 명 보유한 1위 사업자로 생명·건강·상해보험 및 기업 복지 상품 제공
 - 2025년 기준 매출 약 38백만 유로, 순이익 약 21백만 유로(전년 대비 약 7% 증가), 총자산 약 249백만 유로, 자기자본 약 99백만 유로 기록

- 이번 인수는 중동부유럽 내 보험 및 금융그룹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, 우크라이나 시장 내 입지 강화 및 생명보험 사업 규모 확대 기대
 - 전쟁 리스크 대응을 위해 폴란드 수출신용보험공사 KUKE(Polish Development Fund 산하)를 통한 투자 보험 적용
 - 거래 금액은 미공개이며,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규제 당국 승인 이후 최종 완료 예정
- 폴 Grupa Azoty, 금융기관과 계약 연장 통해 구조조정 지속 추진(5.4)
- Grupa Azoty는 주요 금융기관들과 기존 금융계약에 대한 3건의 부속합의(annex)를 체결하여 계약 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
 - 이번 계약 연장은 그룹의 진행 중인 구조조정 활동 지속과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확보 목적
 - 회사는 금융기관들과의 약정에 따라 총 17.08백만 유로 규모의 차입금 상환 또는 한도 축소를 금융기관 간 비례 배분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함
 -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병행하면서 채무 부담 완화 및 재무 안정성 제고 추진
 -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약 131억 즈워티 기록, 다양한 산업군에 제품 공급하며 화학 산업 내 견고한 시장 지위 유지
 - 이번 조치는 최근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, 향후 사업 정상화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
- CPK, Budoprojekt와 신공항 화물지구 'Cargo 2' 설계 계약 체결(5.4)
- CPK가 Budoprojekt와 890만 즈워티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화물지구 2단계(Cargo 2) 설계 문서 개발 착수
 - Cargo 2는 창고·환적·분류 기능을 통합한 물류 인프라로, 항공과 육상 연결 지점에 배치되어 화물 처리 효율 및 처리 속도 극대화 목표
 - 보안 분리 및 접근통제 시스템과 유연한 분류시설을 포함하며, 전체 Cargo Zone은 2031년 말 운영 개시 예정

- 폴 Orlen, 4.1GW 해상풍력 'Baltic West' 해저 지질조사 착수(5.4)
 - Orlen 자회사 Orlen Neptune이 Geofizyka Toruń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3,000km 구간 대상 2D 탄성과 탐사를 통해 해저 지질 데이터 확보 및 풍력단지 설계 기반 마련
 - Baltic West는 그룹의 세 번째 해상풍력 프로젝트로, 향후 지반조사 및 개발 단계 진입 예정이며 폴란드 공급망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기대
- 폴 Mashav Energia, 500MW 태양광 프로젝트 착공 승인 확보(5.4)
 - Mashav Energia의 500MW 규모 Potęgowo 태양광 프로젝트가 지역 공간개발계획 승인으로 본격 건설 단계 진입
 - 약 11.5만 개 Trina Solar 모듈 및 Huawei 인버터 설치, 변전소 (30/110kV)와 20km 송전선 구축 통해 발전 전력 계통 연계 추진
 - 프로젝트는 지역 재정 기여 및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 기대되며, 전체 공사는 2025년 착수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 중
- 폴란드 1차 주택시장, 거래 감소 속 가격 상승 지속(5.4)
 - 2026년 4월 신규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22% 감소한 약 4,000호로 둔화된 반면, 신규 공급(4,300호)은 증가하며 주요 7개 도시 기준 공급 우위 전환
 - 전체 매물은 약 5.92만 호로 전월 대비 1% 증가했으며, 특히 바르샤바·브로츠와프 등에서 공급 초과가 두드러진 반면, 크라쿠프·포즈난 등은 수요 우위 유지
 - 예약 물량은 약 6,700호로 지난 2년간 최고치 기록,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잠재 수요는 유지되나 실제 거래는 불확실성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
 - 가격 상승 지속이 주요 수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2026년 초 누적 판매(1.62만 호)가 공급(1.31만 호)을 상회하나 시장 전반적으로 신중한 공급 기조 유지

○ Orlen, 슈체친에 수소 허브 구축, 수소 인프라 확대 추진(5.12)

- 폴 국영 에너지기업 Orlen은 슈체친(Szczecin) 지역에 자동차용 수소 생산 허브 건설에 착수했으며, 총 투자 규모는 약 75백만 즈워티
- 해당 설비는 약 5MW 수전해 기반, 시간당 최대 90kg(약 2,160kg/일) 수소 생산 가능, 대중교통·상용차용 충전 인프라에 공급 예정
- 슈체친은 유럽 TEN-T(범유럽 교통망) 운송 회랑과 주요 물류 거점에 연결된 전략 지역
- 본 사업은 'Clean Cities - Hydrogen Mobility in Poland' 프로그램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, EU로부터 약 62백만 유로 규모의 무상 지원금 확보
- 시공은 폴란드 기업 Torpol Oil & Gas가 EPC 방식으로 수행하며, 폴란드 현지 기업들의 전략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 사례로 평가
- Orlen은 현재 푸오츠크(Płock) 폐기물 수소화 기반 Waste-to-Hydrogen 사업과 브워츠와베크(Włocławek), 그단스크(Gdańsk) 지역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반 수소 허브 사업을 병행 추진 중
- 슈체친 수소 허브는 2027~2028년경 상업 가동 예정이며, 향후 폴란드 전역에 수소 생산·저장·유통 통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

○ 폴 Energa, 그단스크 복합가스발전소 건설 본격화(5.12)

- Energa는 그단스크(Gdańsk) 지역에서 추진 중인 복합가스발전소 (CCGT) 건설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착수
- 신규 발전소는 약 560MW 규모로, 2029년 상업운전 개시 예정
- 현재 부지 내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, 유틸리티 연결, 내부 도로 및 지원 설비 구축 작업도 병행 추진
- 최대 공사 시점에는 약 700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, 시공 컨소시엄 대표사인 Polimex Mostostal은 전체 프로젝트 관련 지출의 약 80%를 폴란드 국내 시장에서 집행할 계획
- 약 150개 규모의 폴란드 현지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으로, 지역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 기대

- 본격적인 기초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시작 예정, 핵심 설비인 터빈 및 발전기는 Siemens Energy가 제작 및 공급 예정

○ PKP Intercity, EU 지원 철도차량 현대화 사업 84% 집행 완료(5.12)

- 폴란드 국영 철도공사 PKP Intercity가 EU 재건·복원 계획 지원금 2,162백만 즈워티 중 약 1,810백만 즈워티를 집행, 전체 사업 규모는 2,825백만 즈워티에 달함
- 사업은 장거리 철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, 전동기관차 56대 도입 및 객차 248량 현대화를 포함
- PKP Intercity는 NEWAG의 Griffin EU160 전기기관차 56대를 전량 인도받았으며, 객차 248량 중 214량의 개조를 완료
- 현대화 대상 객차에는 1·2등석, 칸막이 객실형 및 개방형 좌석 차량과 다목적 객차가 포함되며, 접근성·편의성·운영 효율 개선에 중점
- 사업 범위 7개 투자 과제 중 5개는 차량 개조 작업과 예산 집행을 완료한 상태이며, 개조 차량은 폴란드 전역 장거리 노선에 투입 중
- 객차 현대화에는 H. Cegielski - Fabryka Pojazdów Szynowych, Pesa Bydgoszcz, Pesa Mińsk Mazowiecki, PKP Intercity Remtrak 등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, 기관차는 NEWAG이 공급
- PKP Intercity는 이번 사업이 승객 서비스 품질 개선뿐 아니라 폴 철도 산업의 고용·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

○ Grupa Azoty, 정부 지원 기반 재무구조 개선 추진(5.12)

- 폴 대통령이 산업개발청(ARP)의 전략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서명, 재무위기에 직면한 Grupa Azoty의 공적 금융 지원 기반 마련
- 개정법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ARP가 구조조정 목적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,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상환 가능성 검토를 전제로 운영
- Grupa Azoty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약 43억 즈워티 규모 부채를 보유, 현재 금융기관들과 부채 재조정 및 유동성 확보 협상을 진행 중

- 회사는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재무부 요청에 따른 유상증자를 승인했으며, 정부 차원의 자본 확충 및 재무 안정화 지원이 병행되는 상황
- 2026년 4월에는 Orlen이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수행 법인인 GA Polyolefin S.A.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, 관련 자회사 부채 부담 완화 및 프로젝트 재무 안정성 개선 기대 확대
- ARP 대출 자금은 운영비 절감과 사업 효율화 중심의 구조조정 용도로 제한되며,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
- 법안 서명 이후 바르샤바 증권거래소(WSE)에서 Grupa Azoty 주가는 장중 약 5% 상승해 주당 약 20.5즈워티 수준까지 오르며, 투자자들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
- 이번 조치는 폴 정부가 화학·광업 등 전략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공적 금융을 통해 지원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, 산업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정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됨

○ Polenergia, 태양광 자회사 매각, 재생에너지 핵심 사업 집중(5.12)

- Polenergia가 주거용 태양광 설치 자회사 Polenergia Fotowoltaika 지분 100%를 폴란드 전력 인프라 투자기업 ELQ SA에 매각 완료
- 이번 매각은 해상·육상 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(ESS)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Polenergia의 전략에 따른 조치

○ Ørsted·PGE, 해상풍력 'Baltica 2' 해상 공사 본격 착수(5.12)

- Ørsted와 PGE는 발트해 폴란드 해역에서 Baltica 2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첫 모노파일(monopile) 기초 설치를 완료, 본격적인 해상 시공 단계 돌입
- Baltica 2는 총 설비용량 1.5GW 규모로, 완공 시 연간 약 5~6TWh 전력을 생산해 약 25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전망
- 프로젝트는 우스트카(Ustka) 인근 해안에서 약 40km 떨어진 해상에 조성되며, Ørsted와 PGE가 50:50 합작 형태로 개발·운영
- 전체 공사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, 상업운전 개시는 2027년 목표
- 이번 설치 작업에는 총 111기의 모노파일이 투입되며, 이 중 107기는 풍력터빈용, 4기는 해상변전소용 기초 구조물로 사용

- 시공은 Van Oord가 수행하며, Aeolus·Svanen 등 특수 해상 설치선과 Cadeler, Fred. Olsen Windcarrier 등이 지원 참여
- 프로젝트는 폴 정부와 체결한 25년 장기 CfD(차액정산계약) 기반으로 운영되며, 2021년 기준 MWh당 71.82유로 수준 가격에 물가연동 구조 적용
- **Grupa Azoty Puławy, 석탄 발전 프로젝트 관련 소송 일시 중단 결정(5.12)**
 - 루블린 지방법원이 Puławy 석탄발전 유닛(BW100)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측이 제기한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, Grupa Azoty Puławy가 2024년 12월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우선 심리하기로 결정
 - Grupa Azoty Puławy는 Polimex Mostostal, Polimex Energetyka, SBB Energy 컨소시엄을 상대로 약 249.2백만 즈워티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
 - 반면 시공사 컨소시엄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218.8백만 즈워티 지급을 요구하며 맞소송 제기
 -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 계약 체결 후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공사비 증액 및 일정 연장이 추진됐으며 2023년 계약 변경 체결
 - 그러나 계약 해지 시점 기준 593일의 공정 지연 발생, 시운전 시 반복적 결함과 성능 미달 문제가 발생하면서 2024년 말 시공사가 시운전을 중단
 - 법원의 이번 결정은 Puławy 프로젝트 관련 법적 분쟁은 장기화되며, Grupa Azoty 그룹의 재무 부담과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전망
- **Enea,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일환으로 풍력발전 자산 인수 완료(5.12)**
 - Enea 자회사 Enea Nowa Energia가 포르투갈 재생에너지 기업 Greenvolt Power로부터 10MW 규모 Zaklikow 풍력발전단지 인수 완료
 - Zaklikow 프로젝트는 총 33.2MW 규모 풍력 포트폴리오 일부로, Skibno(10MW), Jablonowo(6.6MW), Nowe Miasto Lubawskie(6.6MW) 발전단지도 포함
 - 전체 거래 규모는 약 83.3백만 유로이며, 2025년 5월 인수 계약 체결 후 운영 허가 및 발전 라이선스 취득 조건 충족 이후 최종 거래 완료

- 해당 프로젝트는 상업운전 가능한 상태로 인수되었으며,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전략 이행 가속화 기대
- Greenvolt는 폴란드를 핵심 시장으로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자산 매각·재투자 전략을 지속 추진 중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EBRD, 우크라 겨울 대비 에너지 복구 지원 및 신규 발전설비 투자 추진(4.27)

-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기금(Energy Support Fund)을 통해 약 1억 유로 규모의 국제 지원 결정, 겨울 대비 에너지 시스템 복구 및 안정화 목적
- 추가로 국제 파트너들과 약 829백만 유로 규모의 추가 재원 조성에 합의하며 중장기 복구 재원 확대 추진
- EBRD는 약 700MW 규모 신규 발전 프로젝트 금융 지원 계획 발표, 겨울 대비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목적
- 해당 투자에는 유연형 재생에너지, 가스 기반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(ESS) 등이 포함
-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약 400MW 규모 열병합 발전 용량 추가 확보를 통해 분산형 전력 안정성 강화
- EBRD는 전력 부족 규모(약 9GW)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 및 민간 투자 유치 필요성 강조
- 전반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제 금융·물자 패키지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 발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

○ OKKO, 국제금융기관과 189MW 풍력발전 프로젝트 금융 조달 추진(4.27)

- 우크라이나 OKKO Group은 총 189MW 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EBRD로부터 최대 50백만 유로 대출 확보 추진
- 해당 프로젝트는 Volyn West Wind-2 및 Volyn West Wind-3 법인을 통해 추진되며, EBRD는 2026년 5월 28일 해당 금융 지원 안건을 검토 예정

- 총 사업비는 약 262백만 유로 규모로, EBRD 대출 외에도 IFC,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복합 금융 구조로 구성
- EU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(UIF)를 통해 보증 및 기술지원이 병행되어 투자 리스크 완화 및 민간 금융 참여 유도
- 해당 풍력단지에는 연간 약 467GWh 전력 생산이 예상되며, 약 30만 톤 수준의 CO₂ 감축 효과 기대
- 프로젝트 구조는 기존 OKKO의 불린 지역 192MW 풍력사업과 유사하나, 동일 사업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
- OKKO Group은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며, 2030년까지 총 1GW 규모 발전 포트폴리오 구축 목표를 제시

○ IAEA, 자포리자 원전 인근 드론 공격에 핵안전 우려 표명(5.7)
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는 자포리자 원전(ZNPP) 인근 핵 비상대응 인프라가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으며 군사 활동에 따른 핵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
- 원전 외곽 약 4km 지점 외부 방사선 통제실험실(ERCL)의 기상 관측 장비가 공격으로 파손돼 현재 운용 불가능 상태이며, 에네르 호다르 지역에서는 변전소 공격으로 정전·단수도 발생
-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외부 송전선(330kV)에 의존 중이며, 주요 750kV 송전선은 3월 이후 차단된 상태
- Rafael Mariano Grossi IAEA 사무총장은 원전 인근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며, 추가 핵안전 설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
- IAEA는 우크라이나 내 주요 변전소 14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며, 원전 외부 전력망 안정성 유지와 복구 상황 조사 진행 중

○ 폴란드·이탈리아 정상, 우 지원 및 재건 협력 확대 공감대 확인(5.9)

- 폴란드 투스크 총리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로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전후 재건 협력 확대 방안 논의
-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,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, EU 배출권

거래제(ETS), 유럽 재정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확인

-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와 이탈리아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신규 양자 협력 협정 체결 논의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
- 폴란드 측은 전쟁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건 준비를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, 안보와 재건을 병행하는 접근 필요성 제기
- 오는 6월 25~26일 그단스크(Gdańsk)에서 개최 예정인 '우크라이나 재건 회의(URC 2026)'는 단순 재건 논의를 넘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까지 포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
- URC 2026에는 약 100개국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, 이 중 약 40개국은 정부급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
-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유럽 내 정치·경제 협력과 지역 안보 공조를 동시에 강화해 나갈 방침

○ Energy Act for Ukraine, 병원·학교 대상 태양광+ESS 구축 확대 추진(5.9)

- 우크라이나 에너지 NGO Energy Act for Ukraine이 러시아의 전력 인프라 공격과 정전에 대응해 병원·학교 중심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 사업 확대
- 단체는 현재까지 약 1.5MW 규모 태양광 설비와 2MWh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했으며, 오데사 산부인과·신생아센터에는 최대 18시간 중환자실 운영이 가능한 태양광 백업 시스템 설치

○ 美 Alcoa, 우 알루미늄 공장(MAP) 투자 관심 표명(5.11)

- 미국 알루미늄 대기업 Alcoa가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알루미늄 공장(Mykolaiv Alumina Plant, MAP)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
-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 측은 런던에서 Alcoa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, 해당사가 세계 최대급 알루미늄 생산기업 중 하나라고 설명
- 다만 국유재산기금은 Alcoa가 상장 대기업인 만큼, 전시 상황이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결정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

- 미콜라이우 주정부는 MAP가 전후 산업 부문 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, 이미 일부 잠재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원료 공급망까지 검토한 바 있다고 언급
 - 그러나 현재 흑해 해상 운송로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료·제품 물류망 구축이 제한, 본격적인 투자 실행에는 해상 물류 정상화가 핵심 전제 조건으로 지목
 - 우크라 측은 MAP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▲유럽 및 미국 시장 대상 알루미늄 공급 확대 ▲현지 알루미늄 제련공장 건설을 통한 공급망 통합 확대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
- 독일, 우크라 군사훈련센터 구축에 10백만 유로 이상 투자 추진(5.12)
- 독일 정부가 EU 주도 군사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내 군사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에 10백만 유로 이상 투자 계획 발표
 - 독일 Pistorius 국방장관은 신규 훈련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기적 전투 대비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
 - 독일은 현재까지 약 27,000명의 우크라이나군 장병을 자국 내에서 훈련시켰으며, 향후 군사 인프라·교육 지원도 확대 추진
 - 이번 조치는 EU·NATO 차원의 우크라이나 방위 역량 장기 지원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됨
- 미·우, 드론 공동생산·기술협력 위한 방산 협정 초안 마련(5.12)
- 양국이 군사용 드론 기술 수출 및 미국 기업과의 UAV 공동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협력 양해각서(MOU) 초안 작성 완료
 - 협정은 美 국무부와 Stefanishyna 우크라이나 대사의 조율 아래 추진됐으며,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
 - 우크라이나는 2025년 8월 백악관에 드론 협력을 제안했으며, 미국 자금 지원이 양국 방산 생산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
 - 우크라이나는 저가 FPV 드론 대량생산, GPS 없이 운용 가능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, 일부 기술은 미국 투자도 유치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1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6. 04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 (주요동향) '26.3월 말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 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4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투자계약 체결(KIND→ZEIT)
'26년 5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, SPA 체결(KIND→ZEIT)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.4. Phase II 잔여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인 협상

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㈜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피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5.4.1 ~ '25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
'26. 5월 현지조사 수행
'26. 6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

- (주요동향)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KIND-루블린시 스마트시티 협력 LoI 체결(4.28.), MoU 체결 예정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등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현지 착수보고회 및 현장조사 수행 예정 ('25.3월)